

지역사회기반 참여와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본 국내 쪽방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역량강화 방안

김진성*, 허현희*, 정해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Trends and implications of Jjok-Bang research in South Korea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mmunity-Based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Ecological Model

Jin Sung Kim*, Hyun-Hee Heo*, Haejoo Chung***

*BK21PLUS Program in Embodiment: Health-Society Interacti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 School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ends of jjok-bang research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and Social Ecological Model and to provide information for futur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policy designs, and policy implementations. **Methods:** Studies used in the systematic review are published from 1999 to 2014 and searched using key words such as 'jjok-bang' and 'single room occupancy'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lectronic databases. However, there were no studies from abroad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Search in domestic databases such as KCI, KISS, RISS generated 119 studies. In this paper, 20 cases which meet the criteria of the systematic review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Results:** The contents of research included are the life of jjok-bang inhabitants(9 cases), the demand for welfare services(4 cases) and welfare need(2 cases), mental health(1 cases), and the history of jjok-bang formation(4 cases). Fourteen cases of empirical study were analyzed focusing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and Social Ecological Model. Some of research was carried out forming a partnership with various community partners and this trend increased since 2008. There are high frequency of intrapersonal level and interpersonal level studies. However, studies looking at the organization, community or policy level were relatively few. **Conclusions:** Future studies of jjok-bang area should consider the various social determinants which affect the health delivery system, community organization and policies, as well as individual or community level.

Key words: Jjok-Bang Area, Poverty,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Social Ecological Model

I. 서론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초래하였고(Kim & Jo, 2010), 도시의 수용력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도심주변의 달동네, 판자촌과 같은 빈민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집단적 불안정 주거지는 1980년대 도시 재개발과 함께 해체되어 가시적으로 도시빈민 문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쪽방과 같은 새로운 빈민 주거지역 등장의 계기가 되었다(Lee, 2006). 국제통화기금

Corresponding author : Haejoo Chung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02841

주소: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하나과학관 B동 365호

Tel: +82-2-3290-5675, Fax: +82-2-940-2879, E-mail: hpolicy@korea.ac.kr

※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2898)

• Received: August 29, 2015

• Revised: September 25, 2015

• Accepted: September 28, 2015

(IMF) 경제 위기 이후 국내에서는 노숙자 수가 급증하면서 노숙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후 이들의 주거형태 중 하나인 쪽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Kwon, 2008). 쪽방은 고층빌딩 숲 사이에 남아 있는 도시의 빈곤 지역으로 주변상황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쪽방거주자의 열악한 생활은 동시대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Korean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0).

이러한 사회적 배제와 고립 속에서 쪽방 지역의 건강 불평등 이슈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 서울역 쪽방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쪽방 주민들의 37%는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2012), 이는 동일한 질문을 묻고 있는 국민건강통계(2010)에서 나타난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응답률 9.1%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더욱이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쪽방지역 주민 참여자의 61.5%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그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참여자는 21.6%였다. 이러한 수치 또한 2010년도 국민건강통계자료에서 나타난 수치(자살생각 15%, 자살생각자 중 자살시도 5.7%)보다 4배 정도 높아 쪽방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Korea Statistics, 2010; PHI, 2012). 아울러 쪽방주민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담 결과, 주민들의 건강행동이나 타고난 체질 그리고 노화 그 자체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노동, 복지, 경제, 정치적 맥락이 건강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HI, 2012).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개인의 건강 수준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더욱이 쪽방 주민들처럼 사회의 소수·취약계층의 건강은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하위의 빈곤계층인 쪽방 주민의 절반이 노숙 경험을 보고하였는데(Son, Kim, Kim, & Jo, 2012), 불안정한 거주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은 정신적 트라우마 또는 스트레스의 원인(Goodman, Saxe, & Harvey, 1991)이 될 수 있다. 빈곤문제와 맞물려 있는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와 그 밖의 쪽방 상담소를 통한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조는 부양의무자기준제도 등으로 인하여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쪽방 상담소와 같은 사회복지기관 또한 인력과 예산 문제로 쪽방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won & Han, 2008).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증진시키거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연구 접근 방법이다(Israel, Schulz, Parker, & Becker, 1988).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에서 커뮤니티는 특정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비슷한 정체성이나 공통점을 지닌 공동체를 지칭한다(Minkler & Wallerstein, 2011).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강불평등에 대해 공동체 성원들이 참여하는 중재전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체 역량을 높여 미래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체적인 대응능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역사회 문제를 근린공간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 관심이며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주체적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Jung, Jung, Jang, & Cho, 2008). 다시 말해, 보건학에서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중요한 건강 이슈를 발굴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재연구나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의 연구 접근법이다. 국외 연구에서는 주로 이민자, 노인, 어린이, 빈곤계층 등 사회적 약자 커뮤니티나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연구 접근방법(Minkler & Wallerstein, 2011)으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도 활용된 바 있다(Heo & Braun, 2014).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가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언급되었지만 실제 적용은 미약하거나 단편적인 사례들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제시와 논의는 미흡한 편이었다(Yoo, 2009). 따라서 국내의 대표적인 빈곤지역인 쪽방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 관점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를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 쪽방지역을 비롯한 빈곤지역의 건강증진 역량강화 방안 및 정책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사회생태적 관점(Social ecological perspective)은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 처한 사회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Jung, & Yoon, 2006).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연구할 때 개인적인 요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Green & Krueger, 1999). 사회생태적 모형(Social ecological model)을 적용한 건강증진 연구는 건강증진행위의 장애물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고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인과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찾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낮추며(Becker, 1986), 건강증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다(Green & Krueger, 1993). 국내에서는 사회생태적 관점을 이용하여 빈곤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연구(Oh, 2003),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Son, 2005), 노인의 자살생각 유발 변인 파악(Lee, Kim, Choi, & Choi, 2014),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Kim, 2009), 결혼이주여성 정신건강분석(Park, 2007)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생태적 관점으로 쪽방지역에 관한 논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도시 빈곤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불평등을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조직, 지역사회, 공공정책 수준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건강의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쪽방지역과 거주민에 대해 여러 연구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없어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쪽방지역의 건강불평등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역량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와 사회생태적 모델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국내·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첫째, 체계적인 분석틀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쪽방지역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 방법 등을 파악한다. 둘째, 국내 쪽방지역 연구들을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의 핵심요인과 사회생태적 관점을 적용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쪽방지역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향후 쪽방지역 및 빈곤층에 대한 건강증진 역량강화 방안 및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역사회기반 참여 및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모든 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보고 양식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에 근거하였다(Moher, Liberati, Tetzlaff, & Altman, 2009). 이는 Moher 등(2009)이 개발한 것으로 문헌고찰에 선정된 문헌들의 검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문헌검색이 재현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의 문헌선택 흐름도(Figure 1)를 이용하여 문헌검색 전략 및 문헌배제와 선정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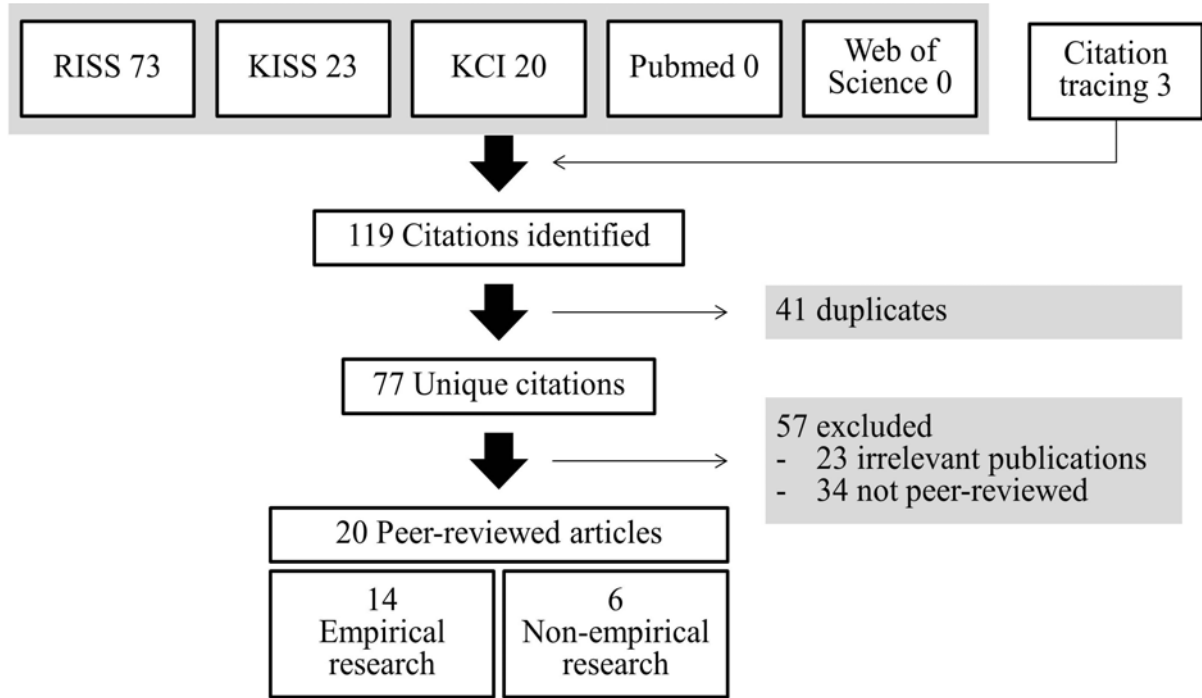
2. 문헌 선정 과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고찰연구를 진행할 때 널리 쓰이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와 Web of Science를 이용하였다. 문헌검색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이루어졌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주제어에 ‘쪽방’과 논리연산자 ‘AND’를 이용하여 ‘쪽방’과 ‘노숙’, ‘노숙자’, ‘노숙인’, ‘도시빈민’, ‘빈곤’을 포함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는 상세검색을 이용하여 논문제목(title) 또는 논문초록(abstract)에 검색어 ‘jjok-bang’, ‘Chok Bang’, ‘accessory unit’, ‘shabby one room’, ‘zzokbang’, ‘skid row community’, ‘jjog bang’, ‘cubicles’, ‘single room occupancy’, ‘small tiny housing’과 AND를 이용하여 ‘korea’ 혹은 ‘korean’을 포함하고 있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문헌검색에서 주제 분야, 연구대상, 발행기관, 게재기간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문헌 선택 범위는 1) 쪽방지역 및 빈곤층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으며, 2) 1차 자료 또는 2차 자료를 이용한 학술논문이어야 하고, 3)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이어야 했다. 동료심사(peer review) 등을 받지 않은 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일명 회색문헌(grey literature)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한국의 쪽방에 관한 국외 논문은 검색되지 않았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16편이 검색되었고, 참고문헌추적(citation tracing)을 통해 쪽방지역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3편의 문헌이 추가되어 총 119편이 검색되었다. 이중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 검색된 42편을 제외한 77편에 대해서 문헌 선정 기준을 적용

하였다. 1차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하여 연구주제와 불일치하는 23편과 비학술자료 16편을 제외하였다. 2차적으로 논문의 전문검토를 통해 연구방법과 참고문헌을 제시하지 않은 16편과 학회지 발표(proceedings) 2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동료심사를 받은 학술지 논문 20편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Figure 1> Study Selection with flow based on the PRISMA Guidelines

3. 분석 기준 및 절차

본 연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국내 쪽방지역의 연구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쪽방지역 연구 20편을 대상으로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은 발행연도,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지역, 연구방법 및 기간, 결과 측정도구 등이었다. 둘째, 쪽방지역 형성과 주거환경 변화에 초점을 둔 비경험 연구 6편을 제외한 경험적 연구(empirical study) 14편에 대해서는 Chen과 그의 동료들이 지역사회 참여연구의 핵심 원칙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석 기준을 제시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CBPR)의 5가지 준거를 적용하였다(Chen, Diaz, Lucas, & Rosenthal, 2010).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의

8가지 원칙은 (Israel et al., 1998; Israel, Schulz, Parker, Becker, Allen, & Guzman, 2003; Israel, Eng, Schulz, & Parker, 2005; Jung, Jung, Jang, & Cho, 2008), (1)지역사회 (community)를 정체성의 단위로 인지, (2)지역사회의 강점과 자원을 구축, (3)권력 불평등에 반대하며 협동과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의 공평한 협력관계(partnership) 촉진, (4)주민의 상호 학습과 역량 증진, (5)모든 협력자의 상호이익을 통해 지식생산과 중재의 균형 달성과 통합, (6)생태학적 시각에 기반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된 복합적인 시각을 지역사회 공중 보건의 관점에 도입, (7)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의 체계적인 발전 유도, (8)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가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hen 등(2010)

은 지역사회 참여연구의 8가지 핵심 원칙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 1차 및 2차적 준거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적 준거에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형성한 후 연구의 과정에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면, 2차 준거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이 연구주제 선정에 참여하였는지, 결과분석에 참여하였는지, 결과배포 과정에 참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의 1차적 준거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협력기관과의 연구계획 및 실행과정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2차적 준거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이 ‘연구주제 선정’,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연구결과 배포’ 과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차적 준거 중 두 가지 항목 모두를 포함하는 동시에 2차적 준거 중 최소 한 개 이상을 충족할 때 지역사회기반 참여 연구로 포함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쪽방지역의 경험적 연구 14편에 대해서 Chen 등(2010)이 제시한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의 1차와 2차 준거의 포함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상적인 지역사회 참여연구는 1차와 2차 준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2차 준거 중 한 가지 이상 포함될 때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로 구분하고 있다(Chen et al., 2010)

셋째, 경험적 연구 14편에 대한 또 다른 분석틀로써 사회생태적모형(Social ecological model)을 사용하였다. 사회생태적 모형은 개인의 행동은 자신이 처한 사회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이론으로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과거경험, 가치기준, 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 가족 또는 사회적인 연결을 이루는 대인관계, 이웃, 지역사회, 사회정책, 문화와 같은 사회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79). Robinson(2008)은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따라 사회생태적 모형을 5가지 차원 - 개인 내 차원, 개인 간 차원, 조직차원, 지역사회 차원, 공공정책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차원의 변수로는 지식이나 태도, 신념, 그리고 성향으로 이들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다. 개인 간 차원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역할규정을 제공하는 친밀 그룹들이 포함된다. 조직차원은 특정 행동을 권유하거나 억제하는 규범이나 규칙 혹은 비공식 구조들을 포함한다. 지역사회차원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규범들이며, 정책차원은 다양한 정부조직의 정책이나 법으로 대상자들의 건강행동을 규제하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쪽방지역의 경험적 연구 14편에 대해서 Robinson(2008)이 제시한 사회생태적 모형의 5가지 차원을 적용하여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지지, 조직적 접근, 정책적 책임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국내 쪽방지역 연구의 동향

국내 쪽방지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논문은 1999년에 발표된 “서울시내 쪽방지역 연구”(Choi & Lee, 1999)를 시작으로 2014년(Yu & Sim, 2014)까지 총 20편 발표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10편이 발표되어 최근 5년간 연구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5편이 발표되어 다른 시기보다 게재 건수가 많았다. 학술지에 쪽방지역 관련 주제로 게재된 저자의 소속은 교육기관이 19편으로, 대부분이 교수 또는 대학원생이었다. 이외에 정부 산하기관(한국도시연구소)은 1편에 불과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6편, 대전 지역 6편, 대구지역 3편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이었으며, 2편은 지역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학술분야는 사회복지관련 분야가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외 보건사회연구, 사회정책, 사회담론과정, 노년학, 도시와빈곤, 비교공법학회, 건축학회, 서울도시연구, 사회과학연구회, 디자인 융복합학회에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쪽방에 대한 국내 문헌 20편의 연구내용을 범주로 구분해보면, 쪽방주민의 삶과 생활실태 연구가 9편(Yoon & Rho, 2005; Kwon & Han, 2008; Kwon 2008; Heo, 2010; Kim, 2008; Kim & Jo, 2010; Jung & Kim, 2013; Lee & Ahn, 2013; Lee & Lee, 2013), 쪽방 지역의 복지제도와 복지욕구 연구가 6편(Lee & Kim, 2004; Lee, 2004; Yoon, 2004; Ha, 2007; Lee & Yeo, 2011; Lee & Kim, 2013), 쪽방주민들의 정신건강 연구가 1편(Kim, 2008), 그리고 빈곤층 주거지 변화와 쪽방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4편(Choi & Lee, 1999; Lee, 2006; Jun, 2011; Yu & Sim, 2014)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연구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쪽방 주민들의 삶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쪽방주민의 삶의 질이 낮다는 점이 경험 연구로 나타났다(Yoon & Rho, 2005). 쪽방 주민들의 불안정

한 주거지와 직업 그리고 불충분한 교육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빈곤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빈곤에 매몰되어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Kim & Jo, 2010). 또한 가족과의 단절 경험과 사회적지지 체계의 부재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Heo, 2010). 쪽방주민들은 어린 시절 가족의 해체경험과 낮은 학력 그리고 사회적 실패로 쪽방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쪽방은 다른 주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포용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Lee & Lee, 2013). 성별에 있어서 쪽방에 거주하는 남성노인들이 가족과 단절되어 편견과 차별로 위축된 삶을 생활한다면, 여성노인의 경우 생계를 위해 쪽방에 들어온 경우가 많았고 가족과의 연계를 통하여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Ahn, 2013). 긴급구호종사자들은

쪽방을 비롯한 빈곤지역 주민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많았지만,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Lee, 2004). 복지욕구에 대한 정책수준으로는 자원개발을 통한 지원확대, 주거최우선 정책, 의료대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Yoon, 2004).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복지제도로는 개별상담, 교육,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났다(Lee, 2004). 쪽방주민들의 신체적 질환은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는 문제중심극복이 우울감을 낮추는데 영향력이 있었지만, 정서중심극복은 우울감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Kim, 2008). 도시지역의 빈곤층 주거지는 재개발과 함께 해체되어 가시적으로 도시빈민 문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쪽방과 같은 새로운 빈민 주거지역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Lee, 2006).

<Table 1> Overview of study characteristics

N	Author (year)	Study objectives	Study population	Area	Sampling	Duration	Research Design	Primary findings
1	Yoon & Rho (2005)	To examine quality of life and which factors influence their quality of life.	185 homeless adults	Daejeon city	Convenience sampling	From 18 Sep. 2003 to 27 Sep. 2003	Questionnaire the Korean Version of WHOQOL-BREF	This study reconfirm low quality of life of homeless people. And the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ir quality of life
2	Kwon & Han (2008)	To understand the living experience of the old residing in Jjok-bang	6 elderly Jjok-bang residents	Daejeon city	Convenience sampling	Not mentioned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 observation, documents	the researchers described the context of Jjok-bang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icipants, and the relationship of participants and found the following four themes: being pushed, withstanding, the place and the others.
3	Kwon (2008)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in Jjok-bang	50 Jjok-bang residents	Daejeon city	Convenience sampling	From Aug. 2007 to Aug. 2008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 observation, documents	To present four dimensions of the daily life: subject, place, time, way of life.
4	Heo (2010)	To fully understand the experience men living, alone in a single room occupancy	8 elderly men in Jjok-bang residents	Not mentioned	Convenience sampling	From Sep. 2008 to Mar. 2009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This study discussed the attitudes of the elderly men living alone in Jjok-bang in meaningful and gender-sensitive ways.
5	Kim & Jo (2010)	To verify reproduction process of poverty and deepening phenomenon of poverty	Jjok-bang residents (the number of subjects is unclear)	Daegu city	Convenience sampling	From 20 Oct. 2009 to Dec. 2009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Poor residing poverty, unfavorable condition in the labor market and unskilled labor were driving them to urban underprivileged bracket permanently and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ir poverty level was deepened and reproduced due to poor health condition

N	Author (year)	Study objectives	Study population	Area	Sampling	Duration	Research Design	Primary findings
6	Jung & Kim (2013)	To understand about elderly men living alone in a single room occupancy and to lead social work intervention.	14 elderly Jjok-bang residents (over 65 years)	Daejeon city	Convenience sampling	From Mar. 2012 to Dece. 2012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The core phenomenon was living alone cut area. The contextual condition was hopeless conditions, barely live alive. The intervention condition were helping hands, be tied to neighborhood by affection.
7	Lee & Ahn (2013)	To understand life of the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7 elderly women in Jjok-bang residents.	Not mentioned	Convenience sampling	For Dece. 2012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ing 3 meaningful subjects were as follows : Shabby one-room town settled clue, Life after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and The current life.
8	Lee & Lee (2013)	To examine the meaning of residential life and resident relationship of the living in Jjok-bang area.	5 Jjok-bang residents.	Seoul city	Convenience sampling	From 31 Oct. 2012 to 31 Jan. 2013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The current policy approach should be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residents,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cheap rent-basis accommodation space by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r remodeling the jjok-bang.
9	Lee & Um (2013)	To explore the life experience of the elderly women	9 elderly women in Jjok-bang residents (over 65 years old)	Daejeon city	Convenience sampling	For Aug. 2012	Qualitative research Ethnographic methodology	The elderly women's life experiences were divided by their meanings into three major categories; subsistence, relationship, alien
10	Lee (2003)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reality of culture of poverty	400 employees of emergent relief facilities	National wide.	Convenience sampling	From Nov. to Dec. 2003	Quantitative questionnaire	The study reveal possibility that the culture of poverty can be expanded under the poor and psychic rehabilitation programs should be reinforced.
11	Yoon (2004)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and practicing social welfare services	99 jjok-bang residents (40 or older)	Daejeon city	Convenience sampling	From 18 Sep. 2003 to 20 Sep. 2003	Questionnair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show that the serious problems the respondents faced, in order of severity, were poverty, health, and neighborhood alcoholic.
12	Kim (2005)	To examine on the effect of stressors and coping resources on depressive symptoms	173 jjok-bang residents	Seoul & Daegu city	Convenience sampling	From Mar. 2005 to Aug. 2005	Questionnair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he problem-focused coping and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depressive symptom of the homeless.
13	Lee & Kim (2004)	To analyz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y surveying living condition	100 jjok-bang residents	Daegu city	Convenience sampling	For Feb. 2003	Questionnair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o strengthen information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delivery system for identifying income. To build protective net and partial salary for working poor. And to adjust the level of cash benefits
14	Ha (2007)	To examine the situation of Jjok-bang and to identify the policy alternatives	156 jjok-bang residents	Seoul city	age-stratified sampling	From Oct. 2006 to Nov. 2006	Quantitative questionnaire	It is need to seek the active participation of our public, private and non-government partners at all levels to ensure legal security of tenure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15	Lee & Yeo (2011)	To derive the politic implications to improve the housing level of the poor	underprivileged groups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National wide	Not mentioned	Not mentioned	Exploratory research	The state have to implement true residential welfare services to realize the hopes of all citizens. and a wide range of customized residential welfare programs.

N	Author (year)	Study objectives	Study population	Area	Sampling	Duration	Research Design	Primary findings
16	Lee & Kim (2013)	To investigate the new illegal housing and scrutinize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compare domestic and abroad illegal housing	Seoul, New work, Hong Kong	Not mentioned	Not mentioned	Exploratory research	It is proposed for Seoul city government to control these kinds of housing in a limited area just for preventing disasters at the moment.
17	Choi & Lee (1999)	To examine the status and features through new definition of Jjok-bang.	Jjok-bang areas of Seoul	Seoul city	Not mentioned	From Apr. 1999 to Oct. 1999	Exploratory research	Although Jjok-bang is a type of housing poor in itself, on the other hand, it is a result of the inner city decline. In other to solve the problems, physical support as well a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should be provided.
18	Lee (2006)	To explor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deprived neighborhoods.	squatter settlements	National wide	Not mentioned	Not mentioned	Exploratory research	As most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was accomplished, the deprived neighborhoods of Seoul diversified into various types. And the public indifference towards the dwelling of the poor is becoming another source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19	Jun (2011)	To understand the basic condition of human dwelling	Minimal Houses	National wide	Not mentioned	Not mentioned	Exploratory research	The minimal houses meets the common trends of housing development of the times correspondingly. But it had time difference, in other words, trickle down phenomenon.
20	Yu & Sim (2014)	To examine the causes and change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Jjok-bang.	56 of the small tiny housing	Seoul city	Not mentioned	Not mentioned	Exploratory research	This paper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life style, land use, and architectural space properties of the Jjok-bang, and suggest the data basis of the future plan.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유형은 경험연구(empirical study)가 14편으로 나타났으며 비경험연구는 6편이었다. 연구방법론은 경험연구 14편 중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가 8편이었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양적연구(quantitative study)는 6편이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쪽방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았고, 쪽방 지역의 긴급구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 그리고 쪽방 지역의 발생과정이나 변화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6편이었다. 경험연구 14편의 표본추출방식을 살펴보면 편의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한 연구가 13편이었고, 할당표본추출 1편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발표된 논문 10편 중 설문조사를 한 양적연구가 6편(Lee, 2003; Lee & Kim, 2004; Yoon, 2004; Yoon & Rho, 2005; Kim, 2005; Ha, 2007)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경험적 연구 2편(Choi & Lee, 1999; Lee, 2006), 질적연구(Kwon & Han, 2008; Kwon, 2008) 2편이 발표되었다. 반면 2008년 이후 발표된 10편을 살펴보면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논문이 5편(Heo, 2010; Jung & Kim, 2013; Lee & Ahn, 2013; Lee &

Lee, 2013; Lee & Um, 201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비경험연구 4편(Jun, 2011; Lee & Yeo, 2011; Lee & Kim, 2013; Yu & Sim, 2014),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혼합 연구가 1편(Kim & Jo, 2010)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와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특성은 기존문헌을 통한 비경험연구 6편을 제외한 경험연구 14편에 대해서만 적용해 분석했다.

2. 지역사회 기반 참여의 핵심요인과 사회생태적 관점

Chen 등(2010)은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의 1차적 준거와 2차 준거를 제시한 후 1차적 준거 두 가지 항목 모두와 2차적 준거 중 최소 한 개 항목을 충족할 때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로 포함시켰다. 쪽방지역 국내 연구 20편 중 경험적 연구 14편을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 준거에 적용하였을 때 14편 중 6편(42%)이 지역사회 단체 및 조직과 협력 관계를 형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2008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6편 중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의 1차적 준거를 포함하는 문헌은 2편(Yoon & Rho,

2005; Ha, 2007)이었지만, 2008년 하반기 이후는 8편 중 4편 (Kwon & Han, 2008; Heo, 2010; Jung & Kim., 2013; Lee & Ahn, 2013)이었으며, 그 중 3편은 지역사회 협력기관이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에 참여하였다. 지역사회 협력기관으로는 노숙인 쉼터(Yoon & Rho, 2005), 쪽방 상담소(Kwon & Han, 2008; Heo, 2010; Ha, 2007), 쪽방 주민(Kwon, 2008), 노인복지관(Heo, 2010), 대전복지재단(Jung & Kim., 2013), 동자동사랑방(Lee & Lee, 2013), 노숙인공동실천단(Ha, 2007)으로 지역사회와 연관된 공적 또는 사적 형태의 단체가 연구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이들 지역사회 협력기관은 연구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주로 연구 대상자 선정과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경험적 연구 14편 중 6편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의 1차적 준거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2차적 준거 3항목 중 1가지 이상 포함하는 연구는 21%, 3편(Kwon & Han, 2008; Jung & Kim., 2013; Lee & Lee, 2013)이다. 이들 연구들은 쪽방상담

소, 대전복지재단, 그리고 동자동 사랑방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한 후 연구대상자 선정과정과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과정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첸(Chen) 등이 제시한 지역사회기반 참여 연구의 1차·2차 항목을 포함하는 연구는 3편(21%)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2차적 준거 중 지역사회 협력기관이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결과 배포에 참여한 연구는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국내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연구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연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 연구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진행 상의 어려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의 난점, 그리고 연구자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Stud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ocial Ecological Model

N	Author (year)	Primary Criteria		Secondary criteria		
		Community partner identified	Community partner involved in the planning and/or execution	Community partner involved in selection of research topic	Community partner involved i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Community partner involved in dissemination of research
1	Lee (2004)					
2	Yoon (2004)					
3	Lee & Kim (2004)					
4	Yoon & Rho (2005)	○	○			
5	Ha (2007)	○	○			
6	Kim (2005)					
7	Kwon & Han (2008)	○	○		○	
8	Kwon (2008)					
9	Kim & Jo (2010)					
10	Heo (2010)	○	○			
11	Jung & Kim (2013)	○	○		○	
12	Lee & Ahn (2013)					
13	Lee & Lee (2013)	○	○		○	
14	Lee & Um (2013)					
N(%)		6(42)	6(42)	0	3(21)	0

본 연구에 포함된 경험적 연구 14편을 살펴본 후 사회생태적 모형에 적용하였을 때 14편(100%) 모두 개인 내 차원에 포함될 수 있는 질병 수준 혹은 개인의 삶의 의미와 생활경험 탐색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개인 간 차원으로 사회적 지지나 주민간의 관계형성을 설명한 연구는 14편 중 12편(86%)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Lee, 2004; Yoon & Rho, 2005; Kim, 2005; Kwon & Han, 2008; Kwon, 2008; Kim & Jo, 2010; Heo, 2010; Jung & Kim, 2013; Lee & Ahn, 2013; Lee & Lee, 2013; Lee & Um, 2013). 개인 내 차원과 개인 간 차원 그리고 조직차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4편(36%)이었다. 이들 연구의 조직차원의 내용은 쪽방상담소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Kwon & Han, 2008; Kwon, 2008)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찰(Lee, 2004; Ha, 2007)이었다. 반면 지역사회 조직 네트워크 혹은 지역사회자원 활용 같은 지역사회차원을 설명한 연구는 14편 중 한 편도 없었으며, 공공정책차원을 설명한 연구는 14편 중 2편(14%)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Lee & Kim, 2004; Ha, 2007). 공공정책차원을 설명한 Lee & Kim(2004)의 연구는

쪽방지역의 개인 내 차원과 정책차원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수급대상자 선정의 문제와 부양의무제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Ha (2007)의 연구는 개인 내 차원, 개인 간 차원, 지역사회 차원 그리고 정책차원을 제시하였다. 주거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주거의 공공재적 성격 및 주거비가 빈곤층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장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극빈층을 위한 주택프로그램이 미흡할 뿐 아니라 시장논리에 기초한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Ha, 2007). 국내 쪽방연구들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연구들이 주로 개인 및 개인 간 수준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지역사회 차원과 정책차원의 영향요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는 건강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개인 책임의 중요성은 충분히 지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3> Stud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N	Author (year)	Intrapersonal	Interpersonal	Organizationl	Community	Policy
1	Lee (2004)	○	○	○		
2	Yoon (2004)	○		○		
3	Lee & Kim (2004)	○				○
4	Yoon & Rho (2005)	○	○			
5	Ha (2007)	○	○	○		○
6	Kim (2005)	○	○			
7	Kwon & Han (2008)	○	○	○		
8	Kwon (2008)	○	○	○		
9	Kim & Jo (2010)	○	○			
10	Heo (2010)	○	○			
11	Jung & Kim (2013)	○	○			
12	Lee & Ahn (2013)	○	○			
13	Lee & Lee (2013)	○	○			
14	Lee & Um (2013)	○	○			
	N(%)	14(100)	12(86)	5(36)	0	2(14)

IV. 논의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5년 간 발표된 국내 쪽방지역 연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들 문헌들을 지역사회기반 참여와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국내 쪽방지역의 연구 내용으로는 쪽방주민의 삶, 주거지 변화와 쪽방형성과정,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지역사회기반 참여 관점에서 살펴볼 때 쪽방지역 연구 중 일부가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 및 조직과 협력을 형성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8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었다.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쪽방연구는 주민의 생활경험 및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수준의 연구와 대인관계 수준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조직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정책을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탐구한 쪽방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빈곤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쪽방지역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부족했다.

언론매체를 통해 ‘쪽방촌 주민 생활고로 인한 자살’, ‘쪽방촌 고독사’와 같은 소식(Hankookilbo, 2015)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지만, 쪽방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은 매우 저조하다.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20편이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총 20편 중 10편이 2010년 이후 발표되어 쪽방지역 연구의 증가 가능성을 보였지만, 국내학술정보(KISS¹⁾)에서 ‘노숙’을 주제로 하여 검색한 결과 216편이 검색된 점을 비교해 본다면,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쪽방지역의 연구내용도 몇 가지 주제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기관-지역사회조직 및 단체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연구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경험적 연구 14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의 5가지 조작적 분석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14편 중 6편이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

하였고, 연구계획 및 실행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6편 중 지역사회 협력기관이 연구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한 연구는 3편으로 빈약하였으며, 더욱이 지역사회 협력기관이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결과 배포에 참여한 연구는 단 한 편도 없었다. 연구자들(Kelaher, Sabanovic, La Brooy, Lock, Lusher, & Brown, 2014)에 의하면 지역사회 협력기관이 건강증진 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을 때 그리고 연구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때 지역주민의 자체적인 역량(power)이 강화되며, 이러한 역량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건강증진 활동을 높인다는 경험적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빈곤계층 및 이민자 등 사회적 소외·취약 커뮤니티의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구성원이 지역건강도우미(community-based health promoter²⁾)로 훈련을 받아 외부 보건의료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사례와 긍정적인 효과성을 소개하고 있다 (Natale, Enard, Nevarez, & Jones, 2011; Ma, W Tan, Chae, & Rhee, 2012; Maxwell, Jo, Crespi, Sudan, & Bastani, 2010). Heo와 Braun(2014)의 연구에서도 미국 내 한인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전략과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건강도우미가 외부 보건의료전문가와 함께 협력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끌었을 때 만성질환과 관련된 건강행동이나 건강결과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회 연구가 단기연구과제의 지원금 등으로 제공되는 현실(Israel et al., 2003)에서 지역사회 기관의 역량 강화는 건강증진 활동의 지속성 유지에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된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정책적 접근이 빈약하다. 쪽방지역과 주민에 대한 연구를 사회생태적 5가지(개인 내,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 정책)차원의 틀로 분석하였을 때 개인 내와 개인 간 차원에 포함되는 쪽방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삶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은 연구에서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조직 간의 연계 혹은 지역 사회 건강증진 기관의 활용과 같은 지역사회차원에 대한 연구 내용은 한 편도 없었으며, 정책차원의 연구 내용은 2편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연구자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즉 학교, 클럽, 비영리단체 등이 협조하여 건강증진 관

1) 2015년 4월에 국내학술정보(KISS)에서 1999-2014년까지 진행된 연구 중 주제어 검색 ‘쪽방’을 입력했을 때 24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노숙’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216건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2) 국외 논문에서는 ‘lay health worker,’ ‘outreach health educator’ 또는 ‘patient navigator’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런 자원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는데(McMahan, Wells, Stokols, Philips, & Clitheoe., 2001), 이는 지역 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 사회 건강증진 자원 활용이 주민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Druss & Rosenheck, 1999). 또한 정책차원에서 보면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개인과 지역사회에 효과적이며,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건강증진이 활발히 운영되지 않거나 소극적인 지역이나 단체에 법을 적용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tokols, 2000).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국내 쪽방지역 연구의 흐름을 파악해 향후 쪽방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과정에서 국내·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술지로 국한하여 검색하였으므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비학술 자료 등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누락된 연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엄격한 리뷰를 거쳐 연구의 비뚤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논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인 PRISMA의 권고사항을 따랐기 때문에 연구 디자인의 엄격성에 비중을 두었다.

V. 결론

문헌고찰에 포함된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는 모두 20편으로 2010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구내용이 몇 가지 주제로 한정되어 있어 쪽방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의 다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존 쪽방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협력기관이 쪽방주민과의 연계 혹은 연구의 결과 논의 등에만 참여하는 소극적인 참여활동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파트너가 연구진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모든 연구과정 설계 및 실행에 참여한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지역사회 역량강화는 쪽방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데, 주민들이 자신의 소리를 반영시킬 때 지역사회 파트너는 자체적인 힘(power)을 형성하며, 이러한 힘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건강증진 활동을 높인다. 또한 연구가 끝난 후에도 지역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을 만드는 것이므로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지역건강도우미의 양성을 포함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만 쪽방지역의 특성상 외부연구자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쪽방상담센터 혹은 복지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할 때 쪽방지역에 대한 연구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지역중심의 보건사업을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 이것이 90년대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중심성이 계속 연결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보건문제를 지역 중심으로 해결해나가기로 법제도가 만들어 졌지만 실질적으로 추동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부실하였다(Jo, 2010). 다행히 지역중심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고(Yoo, 2009; Jung, 2007), 지역사회에는 여러 개의 자발적 조직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나 주민의 역능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이기에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재조직화를 시도한다면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Jo,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쪽방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실제로 North Karelia Project(Pekka, 2008)의 성공적 건강증진 요인 중 하나는 지역사회 주민, 민간기구(NGO), 학교, 보건기관, 언론매체, 정치관계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들이 협력하여 건강문제에 함께 대응했다는 점이며, 그 결과 지역주민의 건강이 향상되었다. 국내 쪽방지역 연구들은 아직까지 개인 내의 특성과 이웃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사회 단체 간의 협력 혹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연구 내용은 거의 없거나 제한적이다. 쪽방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 및 공공기관 들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쪽방지역 주민들은 과거의 실패경험과 사회적 지지 체계의 약화 그리고 반복적인 좌절경험에서 나타나는 학습된 무기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의욕상실과 사회적 비판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사고와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과 직업 훈련 서비스는 부정적인 심리구조를 탈피하고 재활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Lee & Kim, 2004). 하지만 쪽방 주민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생활고와 신체적 건강문제 그리고 의료제도의 낮은 보장성과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개입을 통한 안정감을 확보하더라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생활고와 건강문제 재발 그리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정되지 않는 한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사고는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쪽방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접근은 심리적, 신체적, 직업적 서비스와 함께 사회경제적 지원과 복지 제도의 개선과 같은 통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은 단기적인 서비스가 아닌 장기적인 개입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ecker M. H. (1986). The Tyranny of Health Promotion. *Public Health Review* 1986. 14,15-26.
- Bronfenbrenner, Urie., & Urie,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Chen, P. G., Diaz, N., Lucas, G., & Rosenthal, M. S. (2010). Dissemination of results in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9(4), 372-378
- Choi, J. H., & Lee, J. H. (1999). A study of Chokbang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Seoul Institute*, 5, 20-36.
- Druss, B. G., & Rosenheck, R. A. (1999). Association between use of unconventional therapies and conventional medical services. *Jama*, 282(7), 651-656.
- Goodman, L. A., Saxe, L., & Harvey, M. (1991). Homelessness as psychological trauma: Broadening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46(11), 1219.
- Green, L. W., & Kreuter, M. W. (1993). *Health Promotion Planning: An Educational and Ecological Approach*. McGraw-Hill.
- Hankookilbo. (2015). *Four cases in a month of Jjok-Bang area in samsung-dong, increasing solitary death*.
- Ha, S. K. (2007). Substandard Housing for the Poor and Policy Alternatives: the Case of Jjokbang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al Policy*, 14(1), 122-168.
- Heo, H. H., & Braun, K. L. (2014). Culturally tailored interventions of chronic disease targeting Korean Americans: a systematic review. *Ethnicity & Health*, 19(1), 64-85.
- Heo, S. Y. (2010).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Elderly Men Living Alone in a Single Room Occupancy(Chokbang).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1), 241-260.
- Israel, B. A., Schulz, A. J., Parker, E. A., & Becker, A. B. (1998). Review of community-based research: assessing partnership approaches to improve public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9(1), 173-202.
- Israel, B. A., Schulz, A. J., Parker, E. A., Becker, A. B., Allen, A. J., & Guzman, J. R. (2003). Critical issues in developing and following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principles.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for Health*, 1, 53-76.
- Israel, B. A., Eng, E., Schulz, A. J., & Parker, E. A. (2005). Introduction to methods in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for health. *Methods in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for Health*, 3-26.
- Jang, M. C. (2011). The roll and challenge of Jjokbang counselling center. *Journal of Urbanity and Poverty*, 95, 8-25.
- Jun, N. I. (2011). Social-Historical Changes of 'Minimal Houses' in Seoul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Architectural Research*, 27(3), 191-202.
- Jung, M. S., Jung, Y. K., Jang, S. R., & Cho, B. H. (2008). The methodology of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5(1), 83-104.
- Jung, S. H., & Yoon, H. S. (2006). A theoretical approach of social ecological model fro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7, 87-99.
- Jung, Y. J., & Kim, J. D (2013). A Approached Based on Grounded Theory about the Lived Experience of Elderly Men Living Alone in a Single Room Occupancy.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24(2), 295-322.
- Kelaher, M., Sabanovic, H., La Brooy, C., Lock, M., Lusher, B., & Brown, L. (2014). Does more equitable governance lead to more equitable health care? A case study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health reform in Aboriginal health Australia. *Social Science & Medicine*, 123, 278-286.
- Kim, B. S. (2009).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R. (2007). Stressors and Coping Resources and their Effects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the Homeless. *Journal of Mental Health & Social Work*, 28, 126-151.
- Kim, M. J., & Jo, H. M. (2010). Living Status of Jjok-bang (small single room) Region Residents and Reproduction of Poverty.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3(2), 183-205.
-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0). Jjokbang regional situation and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 Korea Statistics.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Seoul: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0.
- Kwon, G. Y., & Park, K. W. (2007).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 to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wives. *Journal of Sociological Association*, 14(2), 187-219.
- Kwon, J. S. (2008). An Ethnographic Research on the Living Experience of the Residence in Jjok-ba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4), 131-156.
- Kwon, J. S., & Han, G. Y. (20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ving Experience of the Old Residing in Jjok-bang.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60(4), 131-156.
- Lee, H. J., & Ahn, G. D. (2013). The stud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a Shabby One-room.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2), 33-62.
- Lee, H. J., & Um M. Y. (2013). Ethnographic Study of Elderly Women's Life in a Shabby One-room Town: Life Experiences and Their Meanings Given by the Elderly Living alone there While Taking Care of the Town Dwelle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9, 143-176.
- Lee, H. K., Kim, M. S., Choi, S. S., & Choi, M. K. (2014). Eco-Systematic Analysis on the Factors Related to the Korean Elderly Suicide Ide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3), 430-451.
- Lee, H. O., & Lee, E. J. (2013).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 of Life and Resident Relationship in Jjok-bang Area in Dongja-dong.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5, 281-304
- Lee, H. S., & Yeo, G. S. (2011). Research on welfare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groups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Journal of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12(3), 363-388.
- Lee, J. S., (2004). An Explorative Study on the Culture of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4), 149-172.
- Lee, J. S., & Kim, T. W. (2004). A analysis of economic life condition in jjok-bang residents of dae-gu c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5, 143-174.
- Lee, S. C. (2006). From the Squatters to Chok Bang -Deprived Neighborhood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9, 167-208.
- Lee, S. H., & Kim, S. H. (2013). Discussion on New Illegal Housing in Big Cities of Advanced Countries- Focused on Dynamics of Control and Endurance for Affordable Housing - *Journal of the Seoul Institute*, 14(4), 105-125.
- Ma, G. X., W. Tan, Y. Chae, W. G., & Rhee, J. (2012). A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Approach to a Hepatitis B Intervention for Korean Americans. *Progress in Community Health Partnerships: Research, Education, and Action* 6(1), 7-16.
- Maxwell, A. E., Jo, A. M., Crespi, C. M., Sudan, M., & Bastani, R. (2010). Peer Navigation Improves Diagnostic Follow-up after Breast Cancer Screening among Korean American Women: Results of a Randomized Trial. *Cancer Causes Control*, 21(11), 1931-1940. doi:10.1007/s10552-010-9621-7.
- McMahan, S., Wells, M., Stokols, D., Philips, K., & Clitheroe Jr, H. C. (2001). Assessing health promotion programming in small business.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 17.3 (2001), 120-8.
- Minkler, M., & Wallerstein, N. (Eds.). (2011).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for health: From process to outcomes*. John Wiley & Sons.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 Altman, D. G.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1.4(2009), 264-269.
- Natale Pereira, A., Enard, K. R., Nevarez, L., & Jones, L. A. (2011). The role of patient navigators in eliminating health disparities. *Cancer*, 117.S15 (2011), 3541-3550.
- Oh, S. H. (2003). A study on the Eco-systemic factors on child abuse in poverty area.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 7(3), 1-18.
- Pekka, P. (2008). The North Karelia Project: 30 years successfully preventing chronic diseases. *Diabetes Voice*.
- People's Health Institute (2012). Learning from jjok-bang residents' health and lives. PHI Issue 2012-12.
- Robinson, T. (2008). Applying the socio-ecological model to improving fruit and vegetable intake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3(6), 395-406.
- Son, D. S. (2005).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 focused on the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Korea.
- Son, J. I., Kim, S. K., Kim, J. S., & Jo, S. H. (2012). With finishing health right survey of Seoul dongja-dong, what must we do for the health right of jjok-bang residents? *Welfare Trend*, 47-54.
- Stokols, D. (2000). Social ecology and behavioral medicine: Implications for training, practice, and policy. *Behavioral Medicine*, 26(3), 129-138.
- Yoon, K. A. (2004). Social Welfare Needs Assessment for the Zzokbang Area Resi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Review*, 23(1): 209-230.
- Yoon, K. A., & Rho, B. I., (2005). Factors contributing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Urban Homel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1), 219-243.
- Yoo, S. H. (2009). Using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CBPR) for Health Promo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1), 141-158.
- Yu, J. D., & Sim, B. G. (2014). An Analysi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 of Small Tiny Housing in Yeong-Deung-Po Area. *Journal of Society of Design Convergence* 13(6): 265-280.